

202503

수  
마  
마  
나  
님  
꿈  
꿈



# 2025 상반기 성인성서연구

3. 4(화) ~ 6. 12(목)

화요조찬 - 오전 6:30 (개강 : 3월 4일, 선교관 2층 제1예배실)

## 종교개혁의 발자취를 따라서

종교개혁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주요 사건과 인물들의 신앙적 결단을 고찰하고, 그들의 신학 사상과 영적 유산이 현대 교회에 주는 교훈을 배우며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화요일 강의 - 오전 10:00 (개강 : 3월 4일)

강의 제목	강사	장소
사사기 - 하나님의 신실하심	니영덕 목사	본당 B2
요한복음 강해	조성실 목사	선교관 B2
사도행전과 그리스 - 내 영혼의 순례기	홍성민 목사	본당 B2
이방인의 사도가 쓴 로마서	박형진 목사	본당 B1
갈라디아서 - 은혜와 자유의 복음	박동식 목사	2교육관 B2
에베소서	이순기 목사	분당기도처
히브리서 강해	김윤기 목사	선교관 B1
요한계시록 강해	정제현 목사	2교육관 B1
내 영을 부어 주리니	이우성 목사	선교관 2

목요일 강의 - 오전 10:00 (개강 : 3월 6일)

강의 제목	강사	장소
마가복음 산책	이재겸 목사	본당 B1
안녕하세요, 요한복음입니다	권정혁 목사	2교육관 B1
요한의 신학	김영규 목사	본당 B2
예수님의 복음	공민구 목사	본당 B2
사도행전 강해	장재원 목사	선교관 2
요한이 받은 계시	한정운 목사	2교육관 B2
복음의 길을 걷다	추상현 목사	선교관 B2
교회의 시작, 위기, 확산 이야기	문호주 목사	선교관 B1

Bridge3040 - 목요일 오후 8:00 (개강 : 3월 6일)

강의 제목	강사	장소
출애굽기	이재용 목사	온라인

온라인 지구 - 금요일 오후 09:00 (개강 : 3월 7일)

강의 제목	강사	장소
야고보서 강해	이성민 목사	온라인(월 1회 온-오프 병행)

\*소속된 지구와 관계없이 성경공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503



© 2025 소망교회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지하며,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잘못 만들어진 목상집(소망말씀나눔)은 서점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 CONTENTS

March | 2025



## FAITH

하늘을 여는 기도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나니 4

깊어지는 영성  
선한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 김정진 6

목상에 붙임  
예수님의 '올법' 이해 | 송민원 10

## WORD

소망말씀나눔 활용법  
준비·이해·적용·기도 14

말씀 개관  
누가복음 16

3월 본문  
누가복음·열왕기상 20

1주(3/3) | 2주(3/10) | 3주(3/17) | 4주(3/24) | 5주(3/31)



## COMMUNICATION

땅끝에서 온 편지 스페인 교회 이야기   김성기·최윤정	56	가정예배 3월,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178
소망사랑방 우리를 교사로 부르십니다   교회학교	92	소망이 가득한 곳 내가 꿈꾸는 그 나라   소망부	184
생명의 여정 신앙의 관성을 깨다   김영규	128	예배자의 길 3월, 우리의 고백   김경은·송미란·임한숙	186
공간공감 아펜젤러관   홍성찬	162	위로 365 오늘, 화가 나는 이를 위한 위로   이상억	190
이달의 기도 순결하고 깨끗하게 하옵소서	172	성경과 상징 발   교원석	194
믿음's life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   조준식	174	소망뉴스 3월 소식	198

주님을 사모하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어두운 그림자가 함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의 폭력과 악한 본성 때문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이  
우리의 오염된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깊어지는 영성

# 선한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글 김경진



누가복음을 거시적이고 구조적으로 살펴볼 때 찾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9장은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중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선택하고 훈련하시는 내용입니다. 크게 세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단락의 구조에서 예수님의 제자교육의 주안점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제자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행하신 제자 교육의 구조를 개괄적으로 보면, 각 단락은 가르침과 실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단락을 교육과정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과정의 시작인 첫 번째 단계는 이후의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살펴보고 합니다. 우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고 행하신 첫 번째 가르침<sup>6:20-7:50</sup>에는 ‘복이 있는 자’와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눅 6:20~21)*

언뜻 보면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가난과 배고픔을 겪고 있는 사람, 세상에서 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그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제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다른 공관복음서와 달리 누가복음에는 ‘지금’이라는 단어가 돋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지금부터 배고프고, 지금부터 울게 되며, 지금부터 가난하게 된 이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sup>8:1-9:17</sup>에는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와 등경 위에 둔 등잔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모두 사역과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sup>9:18-62</sup>에는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또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두 번째, 세 번째와 조금 다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가르침이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라면, 첫 번째 교훈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의 내용에서 ‘누가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가르침에서 예수님의 제자는 복음의 씨를 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저곳에 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고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눅 6:45)

가 ‘ ’ . 씨를 뿌리는  
능력과 십자가를 지는 능력을 갖추기 이전에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씨를 뿌리는  
능력, 강력한 전도의 능력,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는 능력 등 이런  
능력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이 있습  
니다. 그것은 ‘사람 됨’입니다.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 예수님의 ‘울법’ 이해

글 송민원



히브리어 '토라'는 어근 '야라'(יָרָא)에서 파생된 명사로,  
이 어근은 '가르치다', '인도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 (출 4:15).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다 고센 땅에 이르니(창 46:28).

이러한 어원을 바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가르침'으로 토라를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잠언 6:23은 토라의 이러한 의미가 잘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토라)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잠 6:23).

하나님의 명령인 토라는 ' '이라는 말씀입니다.

'가르침', '인도'를 뜻하는 토라에 법률적 의미를 덧입혀 이해하게 된 것은 기독교가 그리스-로마의 문화적 렌즈를 거쳐 우리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두루뭉술한 토라의 개념은 문화적 굴절을 겪고 '법'이나 '율법'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법률 조항에 대해 우리가 갖는 느낌은 '우리를 가르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토라의 본래적인 의미와는 많이 다릅니다. 특히 현대 개신교인들은 '율법'이라는 단어를 폐기되거나 극복해야 할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율법에 대해 부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어 보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마 5:17-18).

예수님이 율법의 예로 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살인하지 말라",<sup>21절</sup> "간음하지 말라",<sup>27절</sup>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sup>38절</sup>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sup>43절</sup>

한걸음 더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에서 나아갈 것을 가르치십니다.

형제에게 화내거나 욕하지 말고 화복하라,<sup>22-24절</sup> 마음으로 음욕을 품지 말라,<sup>28절</sup> 오른뺨을 맞거든 왼편도 대주고, 속옷을 원하면 겹옷도 벗어 주고, 오 리를 가지면 십 리를 동행하며,<sup>39-41절</sup>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sup>44절</sup>

